

## 민족혼이 담긴 항일음악

군가가 유행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군가를 불러야 할 시대에 부를 노래가 없으면 더 불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행한 때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는데도 부를 사람이 없거나 부를 노래 대신 다른 노래를 불러야 할 시대일 것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약탈하기 전에 그 준비 작업으로 한국의 음악교재를 바꾼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중음악조차 일본식인 요나누키(ヨナ抜き), 엔카(演歌), 미야코부시(都節)로 왜색에 물들게 해 오늘까지도 그 흔적이 유행가류에 남아있다. 이 부끄러운 사실을 밝혀내서 제대로 비판한 이가 민족음악의 국보적 존재였던 노동은 교수였다.

일제가 식민지 민중의 생활 전반에 걸쳐 추진한 의식화 또는 세뇌 작업은 집요하고도 치밀했다. 심지어 술까지도 주세법으로 통제해 토속주나 가양주는 지하로 사라지고 ‘니혼사케(日本酒)’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일본 옷에 일본 술에 취해 일본 노래를 부르니 그 겨를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하물며 민족의식이 자랄 여지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나라와 민족혼을 빼앗기고도 모자라 제 나라를 빼앗은 침략자의 노래를 신나게 부르던 시대의 비애는 8·15 후에도 친일파들이 집권하면서 그대로 계속되었다. 어찌다가 나라를 되찾고도 독립운동가는 학대하고, 그들이 부르던 노래조차 왜색풍 가요 속에 묻혀버리도록 방기했던가. 훌륭한 노래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도 왜 음악 교과서에는 남의 나라 노래만 실고 이를 따라 부르기에 바빠 목이 쉬어야만 했을까.

노래는 만국어이자 영혼의 가장 은밀한 속삭임이요 민족정서의 바탕이며 모성애의 따스함이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그 민족이 보전하는 민요로 가늠된다. 그런데 일제침략으로 고향을 떠난 독립군들의 노래가 단순한 군가나 투쟁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를 짙게 담아낸 민요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있음을 간과한 이 역시 노동은 교수이다.

항일음악이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면서 국권회복과 독립의 소망을 담아 불렀던 노래들을 말한다. 그러나 항일음악은 독립투쟁이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단순한 행진곡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과 희망과 투지와 무한한 사랑이 담긴 민요로서 손색이

없는 곡들이 수도룩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요 「카추샤」가 군가인 것과 같은 이치다. 식민지시대라는 같은 배경에서 나온 음악인데도 친일 군국가요와 항일음악을 비교해 보시라. 군국가요가 얼마나 치졸하며 음악적인 성숙미나 예술성이 얇은 천박한 잡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하면 항일노래들에는 우리의 핏줄이 닿아있는 친근감과 감동이 솟아나는 예술적 정감대가 있다.

아마 노동은 교수가 이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필생의 과제로 여긴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제의 조선 침탈이 시작된 개항 전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항일노래를 총망라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진정한 우리 민족음악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잡아 보겠다는 사명감이었다. 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만주·중국·러시아·하와이·미주 등지에 산재해 있는 악보를 오랜 기간 수습하고 이를 정리해 낸 것이 『항일음악 330곡집』이다.

국내외에 산재해있던 항일음악을 집대성하여 연대별로 정리한 이 노작은 고(故) 노동은 교수의 필생의 염원과 우리 민족의 숙원이 맺은 결실이기도 하다.

노동은 교수는 중앙대 국악대학장과 한국음악학회 회장을 역임한 음악학계의 원로로 다방면에 걸쳐 업적을 남겼지만, 가장 두드러진 공로는 금기의 영역이요 미답의 분야였던 친일·항일 음악 연구에 초석을 놓았다는 점일 것이다.

노 교수는 이 필생의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병석에 들게 되었지만 병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노 교수가 미처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지난 2016년 12월 2일 작고하자, 그의 제자들과 아들 노관우 씨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노 교수의 못 이룬 숙원을 이루고자 『항일음악 330곡집』의 마무리 작업에 진력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작업을 이어갔고 별세를 며칠 앞두고서도 악보를 교정할 만큼 항일음악 복원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노동은 교수의 생전 모습을 잇을 수 없다.

노동은 교수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친일인명사전』 음악 분야의 집필을 주도하는 등 민족문제연구소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친일음악의 청산과 민족음악 선양에 기울인 그의 평생에 걸친 헌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작이 되어버린 이 책을 그의 영전에 바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음악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8.15. 제72주년 광복절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삼가 씀